대한민국 청와대

보 도 자 료

국가안보실, 민 · 관 · 군 전체 IT 자산 관리 점검

국가안보실은 11월 13일(금) 국가안보실 송기호 3차장 주재로 「민·관·군 사이버안보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부터 민간·공공·국방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전수 조사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과 최근 국내외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상황 평가를 실시했다.

최근 AI를 활용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더라도 개별 기관이 운용하는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가 실제 자산과 달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지난 8월부터 민·관·군 사이버 위기 주관기관인 과기정통부·국정원·국방부와 함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산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중간 점검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를 현행화한 관리 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가안보실은 공개되기 전 단계에서 취약점 정보를 해외 정부기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조기에 확보하고, 신속히 공유하여 필요한 사이버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취약점 발생 시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명세서(SBOM)' 도입을 더욱 앞당길 예정이다. <끝>